

중국 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관계

: 현대신유학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동규(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의 발전과정과 그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신유학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현대신유학을 채택한 배경과 현대신유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념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현대 중국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대안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주제어 : 현대신유학,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주의, 유학 사상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7일 개최된 제6회 CAAS(Consortium for Asian and African Studies)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I. 서론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현대신유학¹⁾의 발전과정과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신유학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대내외의 정치경제적 변동 속에서도 중국의 국내외 정책 및 발전 목표에 대한 전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여 왔다. 중국 건국 초기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 내의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며 인민을 동원하였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 이데올로기로 변형하고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장쩌민(江澤民)은 삼개대표

1) 일반적으로 1919년 5.4 신문화 운동 이후 중국에 등장한 새로운 전통주의자들을 현대신유가(現代新儒家, Modern Neo-Confucian), 혹은 당대신유가(當代新儒家, Contemporary Neo-Confucian)로 보고, 이들 학파를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 Modern Neo-Confucianism), 혹은 당대신유학(當代新儒學, Contemporary Neo-Confucianism)이라 한다. 이외에도 현대유학(現代儒學, Modern Confucianism), 당대유학(當代儒學, Contemporary Confucianism)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단순히 Neo-Confucianism, Modern Confucianism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중국 내에서의 현대신유학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중국 유학자 팡커리(方克立)의 정의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중국 대륙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신유학을 현대신유학이라 칭한다. 1986년 중국 공산당이 신유학 연구를 철학사회과학의 제7차 5개년 국가연구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을 당시, 팡커리는 이를 “현대신유학”이라고 규정하였다. 린안우(林安梧)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발전한 신유학을 당대신유학으로 명명하고 현대신유학과 구분하였는데, 이 부분은 IV장에서 현대신유학의 분화를 설명하며 논하고자 한다. 현대신유학 용어에 대한 설명은 송종서, 『현대 신유학의 역정』,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09, pp. 11~15 혹은 Rosker, Jana S., “China’s modernisation: From daring reforms to a modern Confucian revival of traditional values.” *Anthropological Notebooks* 20, no. 2, 2014, p. 97을 참조.

론(三個代表論)²⁾을 제기함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세력을 확장한 사영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하며 자본가 계급을 중국 공산당에 포용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시켜 왔다.³⁾

그러나 1978년 시행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전통 사상이 파괴되어 민족적 정체성이 결핍된 중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야기하였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은 톈안먼 사건과 맞물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위협을 초래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이미 탈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웠고, 중국 공산당은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통치를 지속시켜 줄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것은 중국 전통사상의 핵심인 유학 사상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의 “국학열(國學熱)” 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의 핵심인 유학 사상에 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유학의 전통적 가치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유학의 여러 사상과 가치를 국내외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⁴⁾ 하지만, 현대신유학의 영향력이 증가

2) 삼개대표론을 통하여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 선진생산력의 발전 요구, 중국 선진문화의 진전 방향,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삼개대표론은 중국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당이 아닌, 자본가, 지식인을 포함하는 전 인민을 대표하는 집권 정당으로 변화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도사상으로 수정헌법에 포함되었다.

3)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신서, 2009, pp. 44~45.

4) Cong Xiaoping, “Road to Revival: a new move in the making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party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 no. 83, 2013, p. 905.

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전통 유학 사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고 집권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⁵⁾ 이러한 주장은 현재 마르크스주의보다 신유학의 전통적 가치에 더 의존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행위와 맞물려 현대 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하고 발전시킨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 노선 건설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에만 머무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저자는 II장에서 중국 공산당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에서 현대신유학이 형성되고 발전된 배경과 현대신유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여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중국 공산당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은 다양하다.⁶⁾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5) Bell, Daniel A., "Reconciling Confucianism and Nationalism."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 no. 1/2, 2014, pp. 33~35.

6) 이데올로기는 인식론적, 정치학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 즉 이데올로기가 허위의식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논하기보다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치 투쟁의 훌륭한 매개체로서 집권 정당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지배 위치에 있는 개인 혹은 그룹에 우호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내고, 대중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이데올로기는 통치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념과 가치를 장려하고, 이러한 신념들을 보편화함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⁸⁾ 이는 곧 통치 집단이 이데올로기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지지하는 대중의 합의 (consent)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자 혹은 통치 집단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합의를 얻지 않고, 대중의 자발적인 합의를 확보할 때 더욱 용이하게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를 다시 사회 그룹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를 확보하는 방식을 두 가지인데,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제도화된 선거제도를 통한 선거 방식(electoral mode),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정치 선동과 대중 교육을 이용하는 동원 방식(mobilization mode)이 그것들이다.⁹⁾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과 캠페인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적 선동이 자행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 즉 선거정치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선동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용하며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통치 이데올로기는 특히 중요하다. 통치 이데올로기는 내부적으로 당원의 사상을 통일시킴으로써 당의 통합과 단결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국민들에게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설득

7) Thompson, John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Uitgever: Polity Press, 2013, p. 56.

8) 데이비드 맥렐런 지음, 구승희 옮김,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2, pp. 161~162.

9) Xiaobo Su,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 no. 69, 2011, p. 312.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원이 동의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공산당은 끊임없는 사상투쟁으로 분열되고 국민들의 불신과 외면에 시달릴 것이다.¹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당의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며 대중들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1949년 중국이 건국된 이래, 중국 공산당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과 중국의 발전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중의 합의를 동원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¹¹⁾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등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고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유지하여왔는지를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시키고 대중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49년 중국이 건국된 후, 마오쩌둥은 대대적인 정치선동을 통하여 종교나 전통문화 등 기존에 중국 내에 존재하던 모든 문화와 사상을 공격함으로써, 중국 내에 문화적 공백을 만들었고, 전 중국에 사회주의 노선을 개념화시켰다. 즉, 마오쩌둥의 백화 운동,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은, 결과적으로 혼란과 가난, 파괴로 끝났지만,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양하게 나누어진 계층과 집단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동의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¹²⁾ 그러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급진적 혁명의 결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이 의심을 받게 되자, 덩샤오핑은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부론(先富論)”,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¹³⁾” 등의 실용주의 사상을 주장하며,

10)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신서, 2009, p. 44.

11) Xiaobo Su,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 no. 69, 2011, p. 308.

12) Ibid., pp. 312~315.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각각 1987년 제13차 당대회와 1992년 제 14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그의 개혁 이데올로기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선과 대립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대중으로부터 놀라운 지지를 받았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개혁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대중의 합의와 지지를 가져온 것이다. 장쩌민은 삼개대표론을 통하여 시장경제 도입으로 발생한 사영기업주, 즉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계급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변형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최소한 인민들에게 공산당이 중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당 노선을 정당화하여 당의 통합을 이끌어냈다.¹⁴⁾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이데올로기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들의 동의를 확보하며 중국 공산당의 집권에 유리한 사회 질서를 창출하고 공고화하였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을 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동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왔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통치 이데올로기는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⁵⁾

13)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의 핵심 내용. 덩샤오핑은 1992년 1월 중국 남부 지역을 방문하며, ‘사회주의의 길이나 자본주의의 길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개유리우(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종합국력을 키우는 데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가)를 강조하며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4)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신서, 2009, p. 45.

15) 1949년 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 공산당이 이데올로기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 간의

III. 현대신유학의 발전과정과 그 역할

1. 개혁개방 이후 대안적 이데올로기의 필요성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이 중국 공산당은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 및 발전시키며 정권을 유지하여왔다.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창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대중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곧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차적 원인은 개혁개방 이후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이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시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전통문화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봉건적 잔재로 여기고 “포사구 운동(破四旧 運動: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문화를 타파하자는 운동)” 등의 문화파괴 운동을 격려했고, 그 결과 중국의 전통문화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문화의 파괴와 부재는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⁶⁾ 이런 상황에서 1978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서구 사상과 가치가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1989년 톈안문 사건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즉, 개혁개방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민족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역량이 부재하던 중국에 자유주의적 사상과 가치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켰고, 비록 경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의 변경을 선택한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변화에 치명적 위협을 느껴

갈등이 있었다. 일례로 대약진 운동 시기 마오쩌둥과 펑더화이(彭德懷)의 갈등이 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파벌 간의 투쟁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변형에 대해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위의 책, pp. 29~34를 참조.

16) 한홍석, “중국 문화산업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 『현대중국연구』 제6집 2호, 2004, p. 210.

야 했다. 또 다른 측면은 동구권의 몰락으로 양극체제가 해체되면서 이데올로기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¹⁷⁾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동구권의 몰락으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노선 추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어떻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1986년 9월 28일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 방침에 대한 결의(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를 발표하였다. 이 결의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있어 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학, 문화 건설을 경시하는 중대 실수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동시에 중화민족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임을 강조하며, 역사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시대적 정신으로 체현(體現)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서구 문화가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파괴하였던 전통 문화와 이에 기초한 민족의식을 강조하며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1996년 10월 10일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결의(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는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협하는 서구 자본주의 문화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하여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결의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과학기술, 경영관리 방법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정신문명 건설

17)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공백으로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서 전성홍 편,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06, pp. 167~204를 참조.

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 측면으로 규정하였지만, 동시에 개혁개방에 편승하여 사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서구 사상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상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덩샤오핑의 실용적인 개혁개방 정책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주의의 길로 중국을 인도하며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안정화하였지만, 적절한 이데올로기의 부재와 이로 인한 사회적 신념의 위기는 중국 공산당에게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¹⁸⁾ 결국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동시에 포용하면서도 중국의 다양한 계층과 이익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안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국 전통사상의 핵심인 신유학을 그 대안으로 택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신유학을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 공산당은 서구화에 반대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유학 사상이 중국 내에 들어온 자유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역사적으로 1910년대의 신문화 운동 시기 신유학자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부정하며 “전면서화(全面西化)”를 주장하는 반전통주의자들과 대립하며 서구화를 반대하였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대만과 홍콩에서 발전한 당대신유학도 현대화와 서구화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다.¹⁹⁾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은 신유학자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기초한 민족의식, 중화문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위협하는 자유, 인권 등의 서구적 가치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런 신유학 사상은 서구적 사상과 가치를 억제

18) Cao Qing,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 no. 5, 2007, p. 434.

19) 대만과 홍콩의 신유학자들은 서구 철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중국 철학을 연구하였지만,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물질문명의 병폐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화와 서구화가 같지 않음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채 외,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p. 15 참조.

하면서 현대화를 이룩해야 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신유학을 통하여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화 민족주의의 발전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²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공산당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의 이익을 포괄하며 전체적인 합의를 창출하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신유학이 주장하는 중화민족주의는 중국의 여러 민족과 다양한 계층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다. 셋째, 유교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적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²¹⁾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외치며 계급투쟁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한국 등 아시아의 국가들은 유교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서구의 자유주의 경제 모델과는 다른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경제 모델은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목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2. 현대신유학의 발전과 이데올로기적 역할

1950년대 이후 중국 내에서는 신유학이 존재하고 발전할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²²⁾, 중국 공산당은 우선 대만과 홍콩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를 수용

20) 이상호, “중국의 신유가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양철학연구』 제17집, p. 79.

21) 김병채 외,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p. 191.

22) 신유학자들은 중국의 전통을 봉건적 잔재로 여기는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이었고,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국 대륙을 떠났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신유학 연구는 모중삼, 당군의, 서북관 등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만과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내에 잔존하던 유학 연구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葉志堅, “馬主義思想與大陸新儒學關係論析.” 『中國福建省委黨校學報』 第3期, 2008, p. 15.

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국 내의 신유학을 발전시켜야 했다.

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1981년에 시작된 “문화열(文化熱)”이 그 시초가 되었다. 서구 문화에 대한 반발과 중국 공산당의 사상해방으로 시작된 문화열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단절되었던 신유학에 대한 연구도 재개되었다. 1981년 10월 전국송명리학토론(全國宋明理學討論)에서 이학(理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유학 사상이 얼마나 중국민족의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가 부각되었다. 이후 북경에 중국문화서원이 설립되면서 신유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5년에 설립된 중국문화서원은 중국문화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서구 문화와의 비교연구와 세계 학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뚜웨이밍(杜維明) 등 해외 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행한 강연으로, 중국의 학자들은 홍콩, 대만 등의 신유학 연구와 저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학부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²³⁾

그러나 문화열 시기의 신유학 연구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연구였고, 중국 공산당이 기대하는, 사회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통 사상의 결합을 토대로 서구 가치에 대항하며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대만 및 홍콩에서 이루어진 신유학 연구와는 별도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신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1989년 중국 공산당은 철학사회과학 분야 제 7차 5개년 핵심프로젝트로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선택하였고 대대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1992년에도 중국공산당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제8차 5개년 핵심프로젝트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학술적 지원이 아니라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를 모색하였음을 의미한다.²⁴⁾ 이러한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는 “국학

23) 김병채 외,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p. 154.

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에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신유학 연구는 신유학 사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중국 공산당의 목적에 알맞은 중국 특색의 신유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현대신유학은 중국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었으며, 단순히 신유학의 철학사상을 재건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추구에 필요한 요소를 찾고 활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결합에서 더욱 발전하여 중국 전통사상과 사회주의의 결합으로 강화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결합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개념으로 확대 및 발전시켰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는 문화대혁명 이후 정치운동에 대한 열기가 식으면서 더 이상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 수용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대중은 마르크스주의를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공허한 하나의 정치이론으로 인식하였다.²⁵⁾ 이것은 마르크스주의를 그 권력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대중의 합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으로 도덕윤리 규범에 입각하여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은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²⁶⁾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고유의 전통사상 및 전통

24) 송중서, 『현대 신유학의 역정』,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09, p. 455.

25) 王元, “對接、超越與融合: 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三重意蘊.” 『教學與研究』, 第7期, 2015, p. 54.

26) 韓淑娟, “儒學的新發展與中國特色社會主義建設.” 『東方企業文化』, 第21期, 2013, p. 154.

문화와의 상호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⁷⁾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째, 중국 공산당은 신유학의 이론적 개념을 채용하여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치와 연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인위본(以仁爲本: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 인자애인(仁者愛人: 어진 사람이 남을 아낀다), 민위방본(民爲邦本: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민귀군경(民貴君輕: 백성은 존귀하고 임금의 가볍다) 등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이 “위인민복무(爲人民服務: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정치윤리와 부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민본사상을 견지하며 실천해 왔음을 역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본(民本) 사상을 현대적 정치이데올로기의 중심축으로 삼음으로써, 정치체제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며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와는 다른 중국식 민주주의로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²⁸⁾ 후진타오(胡錦濤)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어울리지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에 기초하여 화해사회(和諧社會)를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마오쩌둥의 계급투쟁론을 초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갈등 해결의 방식을 제기하였다.²⁹⁾ 또한, 천명(天命) 사상은 공산당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³⁰⁾ 이러한 유학의 전통적 가치를 채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는 서방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고유의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유학 사상 및 전통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마르크스주

27) 郭沂. “國家意識形態與民族主體價值相補相成: 全球化時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再思考.” 『哲學動態』 第3期, 2007, p. 12.

28) Cao Qing,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 no. 5, 2007, p. 435.

29) 王元. “對接、超越與融合: 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三重意蘊.” 『教學與研究』 第7期, 2015, p. 55.

30) Cong Xiaoping, “Road to Revival: a new move in the making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party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 no. 83, 2013, p. 905.

의의 중국화가 기존부터 진행되어온 역사 발전의 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우샤오치(劉少奇)의 『공산당원의 수양을 논하다(論共產黨員的修養)』에 기록된 수양의 필요성은 맹자의 “고기심지, 노기근골(苦其心志, 勞其筋骨)”에서, 희생정신은 공자의 살신성인(殺身成仁)과 맹자의 사생취의(捨生取義)에서 받아들였다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와 전통문화의 결합 과정을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유학의 핵심 가치를 정치선전(propaganda)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추진에서 설득력과 전파력을 높이고 있다.³¹⁾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표하고 고등학교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2007년 중국 공산당 제17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핵심가치체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구현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이데올로기 건설 사업은 사회주의핵심가치체제의 구상 위에 있다. 핵심가치체제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론과 중국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하여 지도사상, 공통의 이상, 신념, 도덕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마르크스주의와 전통문화의 결합을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핵심가치에 대한 개념을 제기한 후,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12개의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겸업(兼業: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열심히 한다), 성신(誠信), 우선(友善)이다. 여기에 화해, 법치, 겸업, 성신, 우선 등의 유학의 전통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학의 가치를 정치선전에 이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인식을 대중에

31) 劉東超, “儒學與我國主流意識形態的建設.”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1期, 2011, p. 59.

게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와 유학 사상의 결합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년간 사회 통합,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의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배구조 확립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전통의 부흥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렸다.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학적 중심 사상을 조명하였던 반면, 중국의 공산주의적 경험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났다. Daniel A. Bell은 이에 대해서 “이 행사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정작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은 행사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중국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또한 그는 현대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유학 사상이 실제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선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의 통치자와 유학자들이 서양열강에게 받은 중국의 수치를 기억나게 하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받은 최근의 수치를 잊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학 사상을 대안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심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현대신유학은 중국 공산당의 목적과 의도대로 집권당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시작된 이데올로기의 공백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서 현대신유학을 연구하고 이를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또한 유학의 전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 사회

32) Bell, Daniel A., “Reconciling Confucianism and Nationalism.”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 no. 1/2, 2014, pp. 33~34.

33) *Ibid.*, pp. 50~51.

내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난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그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신유학의 발전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전된 중국의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현대신유학의 한계

중국 공산당이 현대신유학에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식으로 현대 중국철학사상의 틀을 건립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새로운 이념을 구축하여 주는 일이다.³⁴⁾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의 결합을 시도하며, 현대신유학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완적 이데올로기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신유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현대신유학이 보완적 이데올로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고 중국 집권정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은 1989년 문명대화(文明對話)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대만과 홍콩 등 해외 신유학 연구를 받아들이고 중국 신유학의 철학체

34) 김병채 외,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p. 34.

계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푸웨이밍과 리우슈시엔(劉述先) 등의 유학자들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중국 전통 유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각 문명 간의 동등한 대화를 주장하였다. 동등한 대화를 주장하였다는 말은 곧 현대신유학이 다른 사상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는 당시 신유학이 가진 빈곤한 학술적 토대와 대표인물의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리우슈시엔은 “일백년의 중국 철학은 현재 하향세에 있다. 득세하고 있는 서방자유주의 사상은 후쓰(胡适)³⁵⁾가 대표이고, 그 다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오쩌둥을 대표로 한다. 그러나 당대신유학은 20세기 중국철학사상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물이 없다.”³⁶⁾고 언급하였다. 이런 점에서 현대신유학자들이 문명대화를 제기한 것은 중국 내의 신유학이 처한 현실, 즉 마르크스주의가 주도적 지위를 확립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등의 억압을 겪으며 학술적으로 도태된 현실에서 벗어나 서구철학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과 이론까지 연구하며 유학의 철학체계를 재건하고 유학부흥의 토대를 닦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명대화를 통하여 현대신유학자들은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중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던 마르크스주의에 비하여, 중국의 신유학은 현실적 폐단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예를 들어, 문명대화를 제기한 푸웨이밍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분석하여 현대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고 평하면서, 현대신유학은 『자본론』과 같은 저작이 없음을 인정하였다.³⁷⁾ 위잉스(餘英時)도 마르크스 역사관은 중요하고 새로운 관점을 현대사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하였다.³⁸⁾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현대신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35) 중국 5.4운동과 신문화운동의 핵심 인물. 중국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36) 劉述先, 『儒家思想開拓的嘗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pp. 4~5.

37) 杜維明, 『儒學第三期發展的背景問題』, 臺灣: 臺灣聯經出版事業公司, 1989, p. 222.

38) 餘英時, 『內在超越之路—餘英時新儒學論著輯要』,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p. 253.

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며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신유학의 높은 도덕적 가치에 마르크스주의가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입증된 마르크스주의적 실천론을 더함으로써 유학이 기존에 가졌던 전근대적 요소와 지나친 도덕이상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유학과는 구별되는 현대신유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와 동등한 학술적 지위를 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대신유학자들은 현대신유학의 철학적, 사상적 체계를 건설해 나갔고, 이에 따라 핵심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와의 논쟁을 심화시켰다. 즉, 학술 연구라는 명목으로 마르크스주의 비판에 대한 발언권은 얻은 신유학자들은 이후 공공연히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Kangxi(康曉光)의 논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다. 그러나 이 일백 년 동안 우리는 철저한 서방화를 경험하였다.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델에 따른 전면서화(全面西化)이다.”라며³⁹⁾,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부정하고 중국을 유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이런 주장은 1910년대 신문화 운동을 반대하던 유학 전통주의자들의 관점과 비슷하다. 중국 공산당은 현대신유학이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상에 대응하며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보호하는 것을 원하였지만, 서구화를 반대하는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도 결국 서구 사상의 하나이며 그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리우슈시엔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비판하며,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서는 아무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연구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 전통문화가 강조하는 휴머니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1980년대 말 홍콩의 중문대학

39) 康曉光. “我為什麼主張“儒化”-關於中國未來政治發展的保守主義思考.” <http://www.nporuc.org/html/section/papers/20071201/51.html>(검색일: 2015. 8. 25).

40) 康曉光. “文化民族主義論綱.” <http://www.tecn.cn/data/detail.php?id=3553>(검색일: 2015. 8. 25).

25주년 기념강의에서 위잉스는 「中國近代思想史上的激進和保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하여 신해혁명, 5·4운동,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중국 건국, 그리고 문화대혁명들을 혁명적 가치를 지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급진적 운동에 불과하다며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였다.⁴²⁾ 소위 정치유학자로 불리는 쟁칭(蔣慶)은 더욱 노골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며 현대신유학 사상의 부흥을 주장한다. 쟁칭은 1989년 「中國大陸復興儒學的現實意義及其面臨的問題」라는 글에서 현재 중국대륙의 신유학의 발전 단계는 “반포(反哺)” 시기라고 규정하고, 유학자들은 세계문화의 교차점을 점유하고 유학 사상을 해외와 국내로 전파하며 유학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유학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해야만 하고, 역사적으로 숭고했던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여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민족의 민족생명과 민족정신의 전통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또한 그는 2005년 「關與重建中國儒學的構想」라는 글에서 유학은 당대의 중국 왕궁학(王宮學) 지위와 헌법원칙(憲法原則) 지위를 놓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싸워야 하며, 중국 공산당은 유학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이러한 움직임은 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맹목 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는 동등한 사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유학자들이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동등한 사상으로 간주하고 핵심

41) 劉述先. 『儒學思想與現代化—劉述先新儒學論著輯要』,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pp. 203~204.

42) 張三萍. “對話與對立—第三代新儒學與馬克思主義的關係.”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第8期, 2011, p. 85.

43) 蔣慶. “中國大陸復興儒學的現實意義及其面臨的問題.” 『鵝湖』 15卷 第2期, 1989. 이 글에서 쟁칭은 유학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守先待後期, 2단계는 講明正學期, 3단계는 傳播反哺期, 4단계는 返鄉復位期이다.

44) 蔣慶. “關與重建中國儒學的構想.” <http://culture.people.com.cn/GB/27296/3969429.html> (검색일: 2015. 8. 20).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놓고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현대신유학을 이데올로기로 선택하고 빠르게 발전시킨 결과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현대신유학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명목상의 핵심 이데올로기일 뿐 실제적으로는 그 절대적 지위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명목으로 이념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이 아닌 유학 개념을 채용하여 중국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선동으로 대중이 유학에 대하여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점이 신유학자들에게 유학 부흥의 꿈을 다시 심어주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신유학자들의 유학부흥을 위한 움직임은 학술적인 논쟁이나 일회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간의 투쟁이며 그 결과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그 사회주의 노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예즈쨈엔(葉志堅)은 이러한 신유학자들의 주장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보고 중국 공산당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신유학자들의 주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그 근거로 현대신유학자들이 1990년대 이래로 논문, 출판서적, 강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사회 내에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 청소년 교육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⁴⁵⁾

그렇다면 실제로 현대신유학이 현재 중국의 정치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가? 필자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현대신유학은 마르크스주의와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⁴⁶⁾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현대신유학은 1990년대 국학열 운동이라는 국가 주도의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45) 葉志堅, “馬主義思想與大陸新儒學關係論析,” 『中國福建省委黨校學報』 第3期, 2008, p. 15.

46) 張三萍, “對話與對立—第三代新儒學與馬克思主義的關係,”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第8期, 2011, p. 88.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 우호적인 신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신유학을 연구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대만과 홍콩의 영향을 받은 유학부흥론을 억제하고 사회주의 노선의 지속적인 추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래서 몇몇 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신유학을 수용하고 연구하였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현대신유학을 1980년대의 현대신유학과 1990년대의 현대신유학으로 구분하고, 1990년대 이후의 현대신유학을 후기 현대신유학(后期現代新儒學, Post Modern Neo-Confucianism)⁴⁷⁾, 혹은 당대신유학(當代新儒學, Contemporary Neo-Confucianism)⁴⁸⁾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신유학은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국가 주도의 신유학 연구의 산물이며, 그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실천론 등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런 점에서 신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때문에 신유학자들 사이에서도 마르크스주의와의 우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⁴⁹⁾

둘째, 현대신유학의 다양화와 분화 때문이다. 중국의 현대신유학, 특히 후기 현대신유학은 쟁칭의 정치유학(政治儒學), 성홍(盛洪)의 경제유학(經濟儒學), 간춘송(干春松)의 제도유학(制度儒學), 황위(黃玉)의 생활유학(生活儒學) 등으로 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이는 현대신유학이 마르크스주의의 실천론과 결합하면서 형이상학적 철학 사상이 아닌 현실의 물질을

47) 林安梧. “新儒學, ‘後新儒學’, ‘現代’與‘後現代’-最近十余年來的省察與思考之壹斑.” 『中國文化研究』, 冬之卷, 2007, pp. 19~21.

48) 徐慶文. “應當嚴格區分‘當代新儒學’與‘現代新儒學’.” 『社會科學研究』 2月, 2013, pp. 122~124.

49) 위에서 언급한 쟁칭은 유학을 마르크스주의보다 우위에 놓고 유학을 핵심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팡커리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주도적 이데올로기로, 유학을 보조적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다. 劉東超. “儒學與我國主流意識形態的建設.”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1期, 2011, pp. 54~55.

중시하는 실천적 사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송명리학을 계승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신유학과는 달리, 현대신유학은 본질에 대한 탐구와 같은 철학적 사고보다 현실의 생활을, 심(心)보다 기(氣)를, 심신수양보다는 사회정의와 시민도덕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세계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유학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와 분화는 중국 공산당이 현대신유학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화와 분화는 현대신유학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론적 논쟁과 실제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유학부흥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중국신유학의 다양화와 분화가 중국 공산당이 의도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전문화된 유학 사상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가속화시킬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의 이념적 갈등의 범위를 전체 신유학에서 일부 유학자, 주로 정치유학에 속한 학자들 간의 갈등으로 축소시키며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화는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논쟁과 갈등을 현대신유학자 간의 논쟁과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쟁칭과 광커리의 대결이다. 2004년 5월 고등교육출판사는 쟁칭이 초등학교 6개 학년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찬한 『中国文化经典基础教育读本』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광커리는 쟁칭의 집필한 교재의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절치 않다며 교육부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학술적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을 조직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교재 승인을 취소시켰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내에서 현대신유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50) 徐慶文, “應當嚴格區分‘當代新儒學’與‘現代新儒學’.” 『社會科學研究』, 2月, 2013, p. 126.

유학부흥의 꿈을 추구하는 일부 유학자들이 유학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며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여 발전했다는 태생적 한계와 다양화로 인한 분화는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고화하는 보조적 성격의 이데올로기에서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V. 결론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혁명 이데올로기, 덩샤오핑의 개혁 이데올로기, 장쩌민의 3개대표론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여왔다. 개혁개방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데올로기의 공백이 생겼을 때,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봉건적 잔재로 여기며 파괴하였던 유학 사상을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선정하고 1990년대 국가 주도의 신유학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중국 사회에서 현대신유학이 빠르게 발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원은 중국 유학 사상의 무너진 철학체계를 재건하는 학술적 목적이 아니라, 현대신유학을 활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공산당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신유학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유학과는 다르게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유학의 전통 개념과 도덕 가치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명목으로 정치 선전과 국내외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자유주의 사상의 공격과 대중들의 불신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공고화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현대신유학은 중국 공산당과의 종속적 관계 하에서 공산당의 집권을 돕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의 결합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다양화로 인한 분화로 인하여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중국의 현대신유학은 중국 공산당의 보조적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 구조를 확고히 하는데 활용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유도할 만한 역량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병채 외, 『현대신유학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 데이비드 맥넬런 지음, 구승희 옮김,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2.
- 송중서, 『현대 신유학의 역정』,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09.
- 이상호, “중국의 신유가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양철학연구』 제17집, 1997.
- 전성홍 편,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서울: 에버리치출판스, 2006.
-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신서, 2009.
- 한홍석, “중국 문화산업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 『현대중국연구』 제6집 2호, 2004.
- Bell, Daniel A., “Reconciling Confucianism and Nationalism.”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 no. 1/2, 2014.
- Cao Qing,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 no. 5, 2007.
- Cong Xiaoping, “Road to Revival: a new move in the making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party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 no. 83, 2013.
- Rosker, Jana S., “China’s modernisation: From daring reforms to a modern Confucian revival of traditional values.” *Anthropological Notebooks* 20, no. 2, 2014.
- Thompson, John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Uitgever: Polity Press, 2013.
- Xiaobu Su,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 no. 69, 2012.
- 杜維明. 『儒學第三期發展的背景問題』, 臺灣: 臺灣聯經出版事業公司, 1989.
- 郭沂. “國家意識形態與民族主體價值相輔相成: 全球化時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再思考.” 『哲學動態』 第3期, 2007.
- 蔣慶. “中国大陆复兴儒学的现实意义及其面临的问题.” 『鵝湖』 15卷 第2期, 1989.
- 韓淑娟. “儒學的新發展與中國特色社會主義建設.” 『東方企業文化』 第21期, 2013.
- 林安梧. “‘新儒學’, ‘後新儒學’, ‘現代’與‘後現代’—最近十余年來的省察與思考之壹斑.” 『中

『國文化研究』 冬之卷, 2007.

- 劉東超. “儒學與我國主流意識形態的建設.” 『思想理論教育導刊』 第11期, 2011.
- 劉述先. 『儒家思想開拓的嘗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 『儒學思想與現代化—劉述先新儒學論著輯要』,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 葉志堅. “馬主義與大陸新儒學關係論析.” 『中國福建省委黨校學報』 第3期, 2008.
- 王元. “對接、超越與融合: 馬克思主義與儒學關係的三重意蘊.” 『教學與研究』 第7期, 2015.
- 徐慶文. “應當嚴格區分‘當代新儒學’與‘現代新儒學’.” 『社會科學研究』 2月, 2013.
- 餘英時. 『內在超越之路—餘英時新儒學論著輯要』,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 張三萍. “對話與對立—第三代新儒學與馬克思主義的關係.”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第8期, 2011.
- 蔣慶. “關與重建中國儒學的構想.” <http://culture.people.com.cn/GB/27296/3969429.html>
(검색일: 2015. 8. 20).
- 康曉光. “我為什麼主張“儒化”—關於中國未來政治發展的保守主義思考.” <http://www.nporuc.org/html/section/papers/20071201/51.html>(검색일: 2015. 8. 25).
- . “文化民族主義論綱.” <http://www.tecn.cn/data/detail/php?id=3553>(검색일: 2015. 8. 25).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Modern Neo-Confucianism focused on Modern Neo-Confucianism's role as an ideology

Lee, Dong-Gyu(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odern Neo-Confucianism in Mainland China has become the new ideology to ma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legitimacy since 1990s, but has limitations to replace Socialist theories of the CCP by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CP and the Modern Neo Confucianism,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countermeasure of the CCP toward Modern Neo Confucianism's challenge.

With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and the collapse of Eastern Bloc, the CCP faced a threat to its ruling due to an ideological vacuum and the deepening societal faith crisis. In this situation, the CCP realized that they needed a new complementary ideology which could suppress the spread of liberalism and help the CCP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the CCP politically began to support Neo-Confucianism, and the CCP successfully made its legitimacy by emphasiz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using various political concepts of Confucianism. Modern Neo-Confucianism, however, has its limitations such a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Marxism and the division of Modern Neo-Confucianism so that it has little possibility to become a key ideology of the CCP and create the political transition in China.

Keywords : Modern Neo-Confucianism, Chinese Communist Party, Ideology, Marxism, Confucian thoughts

투고일 : 2015년 10월 31일, 심사일 : 2015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02일